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3~15)

칸트는 계몽을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종교나 외부적 권위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이성을 중심으로 주체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에 오늘날 모더니즘이라 부르는 사유 경향의 핵심이 담겨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조리한 권위와 미신을 타파하고 진정한 인류의 발전과 자유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현대의 철학자들은 이 견해에 전체주의가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즉 이성적 사유자로서의 인류 ‘전체’가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치단결’하여 전진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후 헤겔이 보다 강력한 전체주의적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근대 이성주의의 핵심이 사실상 전체주의에 있음을 천명하였다.

게다가 ㉠아도르노를 비롯한 여러 현대의 철학자들이 비판하였듯이 근대 이성주의가 우리에게 보여 준 것은 유토피아적 ㉡展望이 아니라 아우슈비츠\*로 대변되는 비극적 디스토피아였다. 아도르노는 이를 ‘형이상학의 몰락’이라고 하였다. 이때 형이상학이란 ㉢칸트와 헤겔의 철학을 엄두에 둔 말이다. 따라서 형이상학의 몰락이란 근대 이성주의가 더 이상 인류에게 행복과 진보를 안겨 주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인 셈이다. 이런 아도르노적 반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리오타르의 사상이다. 리오타르는 인류가 새로운 실천과 사유를 모색해야만, 다시 말해 삶과 사유의 방식을 변화시켜야만 이러한 몰락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리오타르는 1960년대까지 비판적 사고와 부정의 행위를 통해 이를 추구했으나 한계를 깨달았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는 자신이 고안한 ‘표류’의 사상을 바탕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과 그것에 ㉣相應하는 사고방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리오타르는 비판적 사고가 권력에 봉사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며, 체계 안에 안주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비판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밖으로의 표류’를 강조한다. 즉 폐쇄적인 논리 체계 내에서 맴도는 비판과 부정이 그 체계를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전망을 동반하여 체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표류’인 것이다.

리오타르는 억압되고 소외된 것은 ㉤復權시키고, 감추어져 있는 것은 드러내고, 알려지지 않은 것은 발굴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를 비판하면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언어, 정치, 경제, 성, 텍스트 등 모든 영역을 욕망의 강도에 따라 파악하기 시작한다. 그는 칸트의 글 제목을 패러디한 글에서 자신의 사상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며 칸트의 글에 함축된 근대적 전체주의의 ㉦全鯁을 시도한다. 글의 마지막에 그는 “전체에 대해서 전쟁을 하자. 표현될 수 없는 것의 증인이 되고, 차이들을 활성화하여 그 이름의 명예를 구출하자.”라고 하면서 주체의 죽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이성주의 철학의 종말을 고한다.

18~19세기에 이루어진 서구의 근대화가 ‘계몽의 기획’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면, 20세기 이후의 근대화는 ‘포스트모던의 기획’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 마땅하다. 포스트모던의 기획은 근대라는 시대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가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된 것으로, 비판의 도구에서 지배의 도구로 전략한 근대적 이성의 해체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는 그 ‘가치’에 담긴 전체 이념을 기초로 했던 근대적 역사관의 실효성 상실, 전체성과 통일성의 해체, 그에 따른 주체와 역사 그리고 진보 개념의 해체를 뜻하는 것이다.

\* 아우슈비츠: 제2차 세계 대전 때 나치스의 강제 수용소가 설치되어 유대인 및 폴란드인이 학살된 폴란드의 도시

13.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리오타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를 폐쇄적인 논리 체계 혹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들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 ② 아도르노는 근대 이성주의의 몰락을 예상하고 그에 따라 일어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 ③ 리오타르는 표현될 수 없는 것, 활성화되지 않았던 차이 등은 이성주의 철학 때문에 표현될 수 없었고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다.
- ④ 리오타르가 죽었다고 선언한 주체는 현실에 존재하는 생명체로서의 주체가 아닌 근대적 이성에 기초한 이성적 사유자로서의 주체이다.

14. ㉠~㉣ 중 한자 사용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展望      ② ㉡ 相應      ③ ㉢ 復權      ④ ㉣ 全鯁

15. ㉠과 ㉣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근대적 이성에 포함된 이념에는 문제가 없으나 기능의 변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 ② ㉣은 전체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근대적 이성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이에 근거한 체계를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③ ㉠과 달리 ㉣은 이성적 사유가 인류의 발전과 자유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④ ㉠과 달리 ㉣은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이성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였다.

16. 다음 문장들을 논리적 순서로 배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이는 말레이 민족 위주의 우월적 민족주의 경향이 생기면서 문화적 다원성을 확보하는 데 뒤쳐진 경험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우와 대비되기도 한다.

㉡ 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긍정적이다.

㉢ 영어 공용화 국가의 상황을 긍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영어 공용화 실시는 인종 중심적 문화로부터 탈피하여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그러나 영어 공용화 국가는 모두 다민족 다언어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단일 민족 단일 모국어 국가와는 처한 환경이 많이 다르다.

㉤ 특히, 싱가포르인들은 영어를 통해 국가적 통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어를 수용함으로써 문화적 다원성을 일찍부터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17. 다음 소설에서 사용된 문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향 집에 돌아와서 농사를 한번 지어 보는데, 뼈에 붙은 농사일이 서툰 사람 먼저 알고 사흘거리 잔상쳐요 닷새마다 몸살이라, 지게 지면 뒤뚱뒤뚱 지게목발 따로 놓고, 삽질이며 팽이질에 도리깨질 쟁기질이 어느 하나 고분고분 손에 붙는 일이 없다. 힘쓰기는 더 쓰는데 쓰는 힘 헛돌아서, 연장 도구 부서 먹고 논밭 두렁 무너지고, 제 몸뚱이 다치기에 넘 몸뚱이 겹주기라……. 뼈 빠지게 일한다고 뼈빠진 값 다 받을까. 하루 저녁 비바람에 일년 농사 다 망친다.

- 서정인, <달궁>

- ① 구어체 표현과 언어유희를 사용하고 있다.
- ② 4음보격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민요적인 느낌을 주며 향토적인 정서를 지양한다.
- ③ 사투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민중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4·4조의 율격은 판소리에서 고도로 구사되는 것으로, 위의 소설은 판소리 문체를 현대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18.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 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 ①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대비하여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과거처럼 회상하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③ 타인에 대한 부러움, 시기심 등이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에 대한 자조와 반성이 나타나 있다.
- ④ 화자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9~20)

[앞부분의 줄거리] 북곽 선생(北郭先生)이라는 명망이 높은 선비가 열네로 칭송받는 젊은 과부인 동리자의 방에서 정을 통하려 했다. 이때 과부의 다섯 아들이 북곽 선생을 여우로 의심하여 몽둥이를 들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에 다섯 아들이 함께 어미의 방을 에워싸고는 안으로 들이닥쳤다. 북곽 선생은 깜짝 놀라 부리나케 내뺄면서 그 와중에도 행여 남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겁이 나 한 다리를 들어 목에다 얹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웃으며 문을 빠져나왔다. 그러고는 그렇게 달아나다가 별관에 파 놓은 똥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똥이 가득 찬 구덩이 속에서 버둥거리며 무언가를 붙잡고 간신히 올라가 목을 내밀어 살펴보니, 범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이 이 맛살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막은 채 얼굴을 외면하고 말한다. / “아이구! 그 선비, 냄새가 참 구리기도 하구나.”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며 앞으로 영금영금 기어 나와 세 번 절하고, 다시 꿇어앉아서 아뢰다.

“범님의 덕이야말로 참 지극합니다. 대인(大人)은 그 변화를 본받습니다. 제왕(帝王) 된 자는 그 걸음걸이를 배웁니다. 남의 아들 되는 이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그 명성은 신룡(神龍)과 나란하여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고, 다른 한 분은 구름을 만드십니다. 이 몸은 천한 신하로, 감히 범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합니다.” / 범이 꾸짖으며 답한다.

“에잇! 가까이 다가오지 말렸다. 전에 내 듣기로 유(儒)\*란 유(諛)\*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는 세상의 온갖 나쁜 이름을 끌어모아 제멋대로 내게 갖다 붙이더니만, 지금은 서둘러 면전에서 아첨을 늘어놓으니 그 따위 말을 대체 누가 믿겠느냐?”

천하의 이치는 하나일 따름이니, 범이 정말 악하다면 인간의 본성 또한 악할 것이요,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면 범의 본성 또한 착한 것이다. 네놈들이 하는 말은 모두 오상(五常)\*을 벗어나지 않고, 경계하고 권장하는 것은 늘 사강(四綱)\*에 있다.

그렇지만 사람 사는 동네에 코가 베이거나 발이 잘리거나 얼굴에 문신이 새겨진 채 다니는 자들은 모두 오륜(五倫)을 어긴 자들이다. 이들을 잡아들이고 벌하기 위해 제아무리 오락줄이나 도끼, 톱 등을 써 대도 인간의 악행은 당최 그칠 줄을 모른다. 밧줄이나 떡바늘, 도끼나 톱 따위가 황행하니, 악행이 그칠 리가 없다. 범의 세상에는 본래 이런 형벌이 없는데, 이로써 보면 범의 본성이 인간보다 더 어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중략]

북곽 선생은 자리를 옮겨 부복(俯伏)해서 머리를 세삼 조아리고 아뢰었다.

“《맹자(孟子)》에 일렀으되 ‘비록 악인(惡人)이라도 목욕재계하면 상제(上帝)를 섬길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토의 천신은 감히 아랫바람에 서옵니다.”

북곽 선생이 숨을 죽이고 명령을 기다렸으나 오랫동안 아무 동정이 없기에 참으로 황공해서 절하고 조아리다가 머리를 들어 우러러보니, 이미 먼동이 터 주위가 밝아 오는데 범은 간 곳이 없었다. 그때 새벽 일찍 발 갈러 나온 농부가 있었다.

“선생님, 이른 새벽에 들관에서 무슨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북곽 선생은 엄숙히 말했다.  
“성현(聖賢)의 말씀에 ‘하늘이 높다 해도 머리를 아니 굽힐 수 없고, 땅이 두텁다 해도 조심스럽게 딛지 않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 박지원, <호질(虎叱)>

- \* 유(儒): 선비.
- \* 유(諛): 아첨함.
- \* 오상(五常):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의 오행[오교(五敎)나 오륜(五倫)을 가리키기도 함.]
- \* 사강(四綱): 사람을 규제하는 네 가지 도덕인 예(禮), 의(義), 엄(廉), 치(恥).

19.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대상을 풍자하기 위해 동음이의어를 활용하고 있다.
- ③ 사건의 전개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 ④ 의인화를 통해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20.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범은 인간이 말로는 악을 권하지만 선을 행하는 자가 많다고 주장한다.
- ② 북곽 선생은 남들의 이목(耳目)을 신경 쓰지 않고 의연한 모습으로 도망쳤다.
- ③ 범은 평소와 다르게 아첨하는 북곽 선생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 ④ 북곽 선생은 인간의 본성과 범의 본성을 비교하며 범에게 목숨을 구걸했다.

정답 및 해설

1. ①

예사소리이면서 파열음은 ‘ㅂ, ㄷ, ㄱ’이다. 이 중 여린입천장에서 나는 소리는 ‘ㄱ’이다.

2. ③

‘놀이’는 동사 ‘놀다’의 어간 ‘놀-’에 명사로 만드는 지배접사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서술어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

① ‘놀이 나는’의 ‘놀이’는 ‘날다’를 꾸며주는 부사이다.

② ‘꿨이다’는 동사 ‘꿨다’에 사동접사가 ‘-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낱말이다. 사동접사가 모든 동사에 붙을 수는 없다.

④ ‘오시기’의 ‘-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오기’ 자체가 부사어 ‘일찍’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동사이다.

3. ③

이육사의 작품에서 알 수 있는 자세는 의지적인 태도와 ‘의로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③이다.

③ 사생취의(捨生取義): 목숨을 버리고 의리(義理)를 좇음의 뜻으로, 비록 목숨을 버릴지언정 옳은 일을 함을 일컫는 말.

① 겸양지사(謙讓之辭):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하는 말.

② 견리사의(見利思義): 눈앞에 이익(利益)을 보거든 먼저 그것을 취함이 의리(義理)에 합당(合當)한 지를 생각하라는 말.

④ 백척간두(百尺竿頭):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위태(危殆)로움이 극도(極度)에 달함

4. ④

‘소나기’는 ‘도련님에게 퍼부어질 춘향의 격렬한 사랑’을 의미한다.

서정주, <춘향유문>

- ◆ 성격 : 전통적, 고전적, 낭만적, 이상적, 초월적, 불교적
- ◆ 표현
  - \* 여성적이고 섬세한 어투
  - \* 독백 형식의 문체
  - \* 4음보의 안정된 율격
  - \* 대조법, 대구법
- ◆ 중요 시어 및 시구풀이
  - \*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 늘 안녕히 계세요.
  - ① 푸르른 생명감의 표상
  - ② 둘의 사랑이 이루어진 공간의 상징물
  - ③ 임으로 하여금 생생한 사랑의 기억을 영원히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
  - ④ 첫 만남의 설렘 - 임의 안녕과 함께 사랑의 추억이 지속되기를 바람
  - ⑤ 소나기가 되어 돌아올 것을 전제함-그들의 사랑이 늘 풍성하고 싱싱한 것이 되기를 바람
    - \* 춘향의 사랑보다 오히려 더 먼 / 만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 영원한 사랑이 '길'이로 표현

죽음의 세계조차도 춘향의 사랑 안에 있음을 말함.

- \* 천 길 땅 밑 → 지옥
- \* 도솔천의 하늘 → 극락세계
- \*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어요? → 영혼만은 항상 도련님과 함께 있음을 나타냄.
- \* 검은 물 → 구름 → 소나기 : 윤희사상, 인과론적 사상에 의거한 춘향의 변신
- \* 소나기 → 도련님에게 퍼부어질 춘향의 격렬한 사랑
- \* 거기 → 도련님이 비를 맞는 곳
  - 입과의 정신적 합일의 경지
  - 이 도령을 완전히 점령하는 사랑의 공간

◆ 주제 ⇒ 시공을 초월한 여인의 불변불멸의 사랑 [시상의 흐름(짜임)]

- ◆ 1연 : 체념적인 인사
- ◆ 2연 : 과거의 사랑 회상과 작별의 말(1연에 대한 부연)
- ◆ 3연 : 죽음을 초월한 사랑
- ◆ 4연 : 생사와 시공을 초월한 사랑
- ◆ 5연 :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

5. ②

고등어 열 손 = 20

복어 두 쾌 = 40

김 다섯 톨 = 500

삼치 두 못 = 20

조시 세 두름 = 60

6. ④

\* 가물에 도랑 친다(북한어): 아무 보람도 없는 헛된 일을 하느라고 부산스레 굶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까마귀 미역 감듯: 까마귀는 미역을 감아도 그냥 겁다는 데서, 일한 자취나 보람이 드러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 ④

기본형이 ‘삼가다’이고, 단어에 이미 ‘하다’의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에 뒤에 ‘하다’를 붙여 사용하지 않는다.

8. ①

빈 칸에 공통적으로 들어 갈 낱말은 ‘봄에 부는 바람’, ‘동쪽에서 부는 바람’의 뜻을 가진 ‘동풍’이다.

9. ④

㉠에는 ‘내가 노래를 부르기’처럼 명사절이 안긴문장에 목적어가 있지만 ㉡에는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에서처럼 목적어가 없다.

①, ② ㉠에는 ‘내가 노래를 부르기’의 명사절이 안긴문장이, ㉡에는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의 명사절이 안긴문장이 있다.

③ ㉠과 ㉡ 모두 안긴문장에 관형어는 없다. ㉠에는 ‘노래를’이라는 목적어가 있고, ㉡에는 ‘벼농사에’라는 부사어가 있다.

10. ③

알맞은 것은 ㉠, ㉡, ㉢이다.

㉠ 모음 ‘ㅞ, ㅟ, ㅢ, ㅣ’ 등은 15세기에는 이중모음이었는데 현대로 오면서 단모음으로 바뀌었다.

㉡ ‘어리다’는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어리다’로 의미가 바뀌었다.

㉢ ‘사랑하다’는 ‘생각하다’였는데 그 의미가 사라졌다.

㉣ 15C 주격 조사는 ‘-이, -ㅣ, 제로격’이 먼저 쓰이다가 17C에 주격조사 ‘-가’가 사용되기 시작한다.

㉤ 15C에는 글자 옆에 방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로써 의미를 변별하였다. 이것이 점차 소리의 장단(長短)으로 바뀌었다.

㉥ ‘어여쁘다’는 ‘불쌍하다’에서 ‘예쁘다’로 의미가 변하였다.

11. ㉡

‘발다’의 피동형이 ‘받히다’를 써야 한다.

→ 통발을 신던 어부가 차에 받혀 의식을 잃었다.

12. ㉢

편견(偏見):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① 오만(傲慢):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함. 또는 그 태도나 행동.

② 독선(獨善):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일.

④ 아집(我執): 자기중심의 좁은 생각에 집착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것. = 집착(執着)

13. ㉡

이 글은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칸트의 철학이 전체주의가 내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성주의가 전체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비판하는 글이다. 따라서 아도르노는 이성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 이성주의의 몰락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

14. ㉣

전복(全腹): 전복과에 딸린 조개.

문맥상 전복(顛覆)이 어울린다.

① 전망(展望): 멀리 바라봄.

② 상응(相應): 서로 어울리다.

③ 복권(復權): 잃거나 정지(停止)되었던 권리(權利)나 자격(資格)을 다시 찾음.

15. ㉢

㉠은 이성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성적 사유가 인류의 발전과 자유의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6. ㉡

㉡ 영어 공용화 실시는 다원주의적 문화 정체성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다원주의적 정체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 싱가포르가 좋은 예이다. ㉤ 싱가포르의 말레이시아의 경우와 대비된다. ㉥ 그러나 한국은 환경이 조금 다르다.

17. ㉡

이 작품은 4음보의 민요적 문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농기구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향토적인 성격을 얻고 있다. ‘지양(止揚)’하는 것이 아니다.

서정인, <달궁>

◆ 갈래 : 장편소설, 연작소설

◆ 배경 : 시간 - 현대(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 / 공간 - 서울과 시골 (전라북도)

◆ 문체 : 간결체와 만연체의 혼합.

지문과 대화의 무시, 요설적(쓸데없이 말이 많음) 문체 등 혼합적인 문체.

◆ 시점 : 3인칭 전지적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자유로운 시점의 이동)

◆ 경향 : 리얼리즘

◆ 체제 : 한 여인의 죽음과 여러 인간 군상의 삶.

◆ 주제 : 여러 인물들의 삶의 궤적(軌跡)을 통한 인생의 참모습. (사회 현실의 격랑 속에서 겪은 개인적 삶의 존재 의식.)

인물 : 나 - 연작(連作)인 <달궁>의 서술자이자 관찰자.

인실 - 주인공. 연작(連作)인 <달궁> 25편에서 만나는 이들을 작중으로 연결시키는 인물.

18. ㉠

이 작품은 시를 쓰고 있는 시점보다 훨씬 먼 미래의 시점을 상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젊은 날의 삶의 반성이지 과거와 현재의 삶을 대비하여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 성격 : 비유적, 성찰적

◆ 표현 : 영탄적이고 애상적인 어조

시를 쓰고 있는 시점보다 훨씬 먼 미래의 시점을 상징하여 시상을 전개시킴.

◆ 중요시어 및 시구풀이

\*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 청춘의 열정을 사일 만큼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에

\* 책 →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기록과 기억이 담긴 곳

\* 힘없는 책갈피 → 힘을 잃은(나이가 들어 희미해진) 기억의 좌표

\* 이 종이 → 이 시를 쓰고 있는 종이를 가리킴. 화자의 젊은 날의 고백과 방황의 기록이 담긴 종이

\* 책갈피가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 나이가 들어 희미해진 젊은 시절에 대한 기억을 회상시킬 것이다.

\* 마음에 세운 많은 공장 → 무언가를 생산하고 창조하기 위해 들끓는 열정으로 가득한 젊은 날 화자의 심적 상태

\*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 열정적으로 사는 듯 했지만, 결국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 지금까지의 삶이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산 삶이었음을 깨달음.

\*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 화자가 젊은 날에 품었던 꿈과 열정은 결국 질투에 불과했다는 뜻임.

\*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 둔다 →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문장

\*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화자의 반성이 압축적으로 표현된 핵심구절

◆ 주제 : 젊은 날의 삶에 대한 반성적 인식

[시상의 흐름(짜임)]

- 1 ~ 2행 : 미래에 대한 상상(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일을 상상함)  
 3 ~ 6행 : 청춘의 모습(미래의 시점에서 바라본 현재의 모습) - 부정적 인식  
 7 ~ 11행 : 삶의 태도에 대한 반성적 성찰 ('내 희망은 질투')  
 12~14행 :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은 청춘의 삶에 대한 기록을 남김.

19. ①

이 작품에 구체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없다.

② '유(儒)\*란 유(諛)\*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에서 동음이의어를 사용한 언어유희가 드러나 있다.

20. ③

이 글에서 범은 '유(儒)\*란 유(諛)\*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처럼 말하며 북곽 선생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다.

박지원, <호질>

- ◆ 성격 : 한문 단편 소설, 풍자 소설, 의인 소설, 우화 소설
- ◆ 창작 연대 : 18세기 말(정조 때)
-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 주제 : 조선 시대 양반의 도덕적 허위식 풍자  
 ⇒ 북곽 선생으로 대표되는 유학자들의 위선 풍자  
 동리자로 대표되는 정절부인의 가식 폭로

◆ 등장인물

▲ 북곽선생 → 이름 높은 위선자로서 벼슬을 싫어하는 체하는 선비이다. 그러나 남몰래 젊은 과부와 사랑을 속삭이다 동리자의 성이 다른 다섯 아들에게 발견되어 봉변을 당하고 도망치다 똥통에 빠지고 또 범을 만나 갖은 아침을 다하고 농부를 만나서는 변명을 하는 위선자이다.

▲ 동리자 → 정의 고을에 살고 있는 과부로서 국가에서 열녀문까지 받은 열부였으나 아버지가 다른 다섯 아들을 두고 있다. 더구나 이름 높은 학자 북곽 선생과 정을 통하다 아들들에게 발각된다.

▲ 다섯 아들 → 동리자의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이다 자기 어머니와 사랑을 속삭이는 북곽 선생을 여우의 변신으로 알고 습격한다.

▲ 농부 → 정의라는 고을에 사는 농부로서, 새벽 일찍 북곽 선생이 똥통에서 나와 범에게 밧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유를 묻는다.

▲ 의원 · 무당 → 정의 고을에 살면서 흑세무민하는 사람들이다.

▲ 범 → 호랑이는 비록 인간은 아니지만 의인소설로 볼 때 주인공 아닌 주인공이라 할 수 있다. 호랑이는 북곽 선생으로 대표되는 봉건 사회의 위선적 유학자들을 꾸짖는 역할을 한다.